



가장자리의 삶

전국 아시아 태평양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관한 설문조사

By Alain Dang and Cabrini Vianney



전국 동성애자 정책조사원 (The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Policy Institute)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동등한 권리를 위한 연구, 정책 분석 및 전략 개발에 목적을 둔 단체입니다.

Washington, DC

1325 Massachusetts Ave NW, Suite 600
Washington, DC 20005-4171
Tel 202 393 5177
Fax 202 393 2241

Cambridge, MA

1151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Tel 617 492 6393
Fax 617 492 0175

New York, NY

80 Maiden Lane, Suite 1504
New York, NY 10038
Tel 212 604 9830
Fax 212 604 9831

Miami, FL

3510 Biscayne Blvd, Suite 206
Miami, FL 33137
Tel 305 571 1924
Fax 305 571 7298

Los Angeles, CA

8704 Santa Monica Blvd, Suite 200
West Hollywood, CA 90069
Tel 310 855 7380
Fax 310 358 9415

Minneapolis, MN

810 West 31st Street
Minneapolis, MN 55408
Tel/Fax 612 821 4397

theTaskForce@theTaskForce.org

www.theTaskForce.org

© 2007 The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Policy Institute

이 문서를 인용 할 경우 다음을 표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Dang, A., and Vianney, C. (2007). *Living in the margins: A national survey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s*. New York: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Policy Institute.

개요 Executive summary

2005년 미인구조사국은 미국 내 천 4 백만의 아시아인이 살고 있으며 향후 50년 내에 그 수가 세배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실질적으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동양계 미국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증가율(3.3%)의 약 4 배인 1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히스패닉 및 라틴계 인구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LGBT)라고 밝힌 아시아 태평양계(API) 미국인에 대한 양적, 사회-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전국 동성애자 정책조사원은 2005년부터 전국 12개 이상의 APILGBT 커뮤니티 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의 아시아 태평양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APILGBT)의 기초적인 인구 통계학적 조사와 차별과 괴롭힘, 그리고 정치적 참여와 시민 운동의 참여 경험에 비추어 여러 소수 민족 정체성이 미치는 영향의 양적인 분석을 위해 이 설문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인구 통계학 DEMOGRAPHICS

이 연구는 미국 내 실시된 설문 조사 중 가장 많은 숫자인 860명 이상의 응답자들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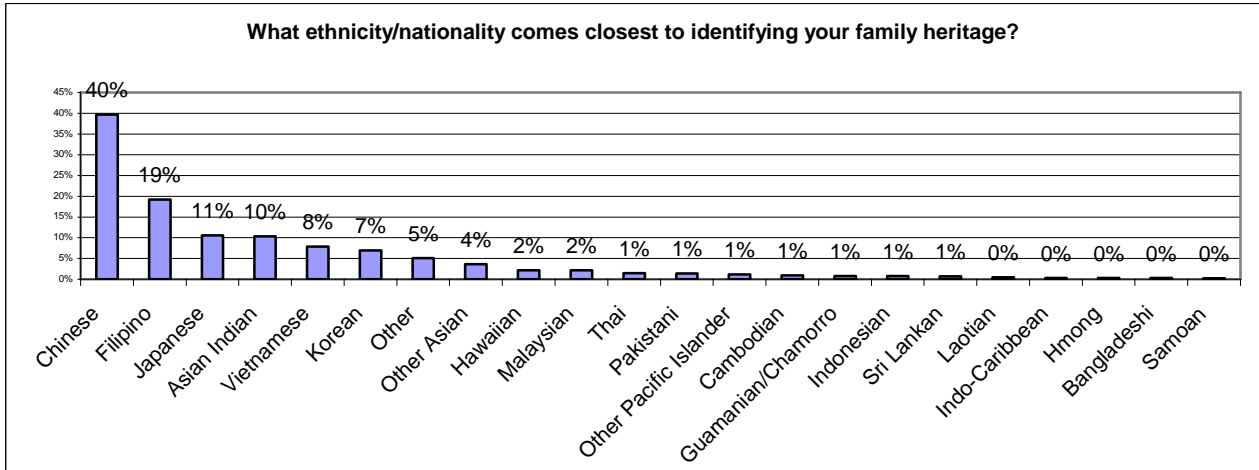
지리적 분포 GEOGRAPHIC DISTRIBUTION

응답자들은 콜롬비아 연방을 비롯 미국 38개 주에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미국 내 아시아태평양계의 지리적 분포도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살고 있으며 (37%), 뉴욕 (18%), 일리노이(5%), 메사추세츠(5%), 그리고 DC 지구(4%)이 그 뒤를 이었다.

민족적 그룹 ETHNICITY

아시아 태평양계(API)란 누구인가?

아시아태평양계(APIs)란 아시아 또는 태평양 섬을 모국으로 그 독특한 역사, 문화, 그리고 이주의 배경을 가지고 미국 내 살고있는 광범위한 민족 그룹을 칭한다. APIs 는 인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와 같은 남아시아, 베트남, 타이랜드와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모아, 괌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 등 태평양 섬 출신과 그 후손을 포함한다.



응답자들은 중국계(40%), 필리핀계(19%), 일본계 (11%) 와 인도계(10%)를 포함 12 개 이상의 민족 다양성을 보였으며 기타 소수의 베트남계, 한국계, 하와이언, 말레이시아계, 타이 그리고 파키스탄계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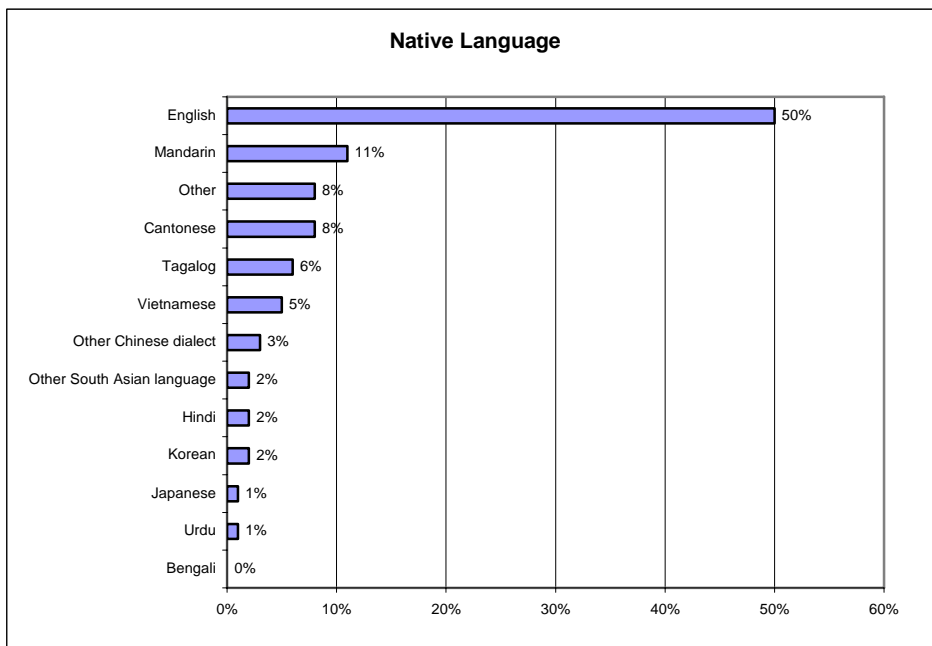
미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계 민족으로 중국계(2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리핀계(18%), 인도계(16%), 베트남계(11%), 한국계(11%), 그리고 일본계(8%)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본 설문조사가 전국의 다양한 아시아태평양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권 CITIZENSHIP

설문에 참여한 다수의 응답자(55%)가 미국태생의 시민권자라고 답했으며 27%는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약 19% 정도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2000 년 인구 조사에서 아시아계가 31%의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 34%의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35%의 비시민권자의 분포를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설문조사의 API LGBT 개인들이 미국 내 전체적인 API 인구에 비해 시민권자(미국 태생 또는 귀화 시민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어 NATIVE LANGUAGE



응답자중 50%만이 영어가 모국어라고 답했으며 만다린(11%), 칸토니즈(8%), 타갈로(6%), 그리고 베트남어(5%) 순으로 모국어를 꼽았다.

미인구조사국의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약 4/5 정도의 아시아계(79%)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3/5 (60%)는 영어를 매우 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중국어, 타갈로 그리고 베트남어가 미국 내에서 영어와 스페인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섯 언어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는 일곱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성 정체성 GENDER AND GENDER IDENTITY

응답자중 53%가 자신의 성별을 남성으로 41%가 자신을 여성으로 표시했으며 10%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 표시했다. 응답자중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로 표시함과 동시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표시한 경우 양쪽에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 숫자의 합이 100 을 넘게 나왔다.

응답자의 성별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 조사는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여자에서 남자로”, “트랜스젠더: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 성전환”,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이(2) 성/양성”, 그리고 “기타의 예를 제시하고 본인의 성별에 해당하는 모두를 표시하도록 했다. 응답자중 트랜스젠더를 선택한 사람의 수가 적으므로 통계분석을 위해 모두 “트랜스젠더”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다.

성적 성향 SEXUAL ORIENTATION

응답자중 47%가 자신을 게이(남성동성애자)로 정의했으며 19%가 자신을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으로 9%가 양성애자로 정의했다. 20%는 스스로를 “퀴어”라고 정의했으며 이들 중 여자가 남자보다 2 배이상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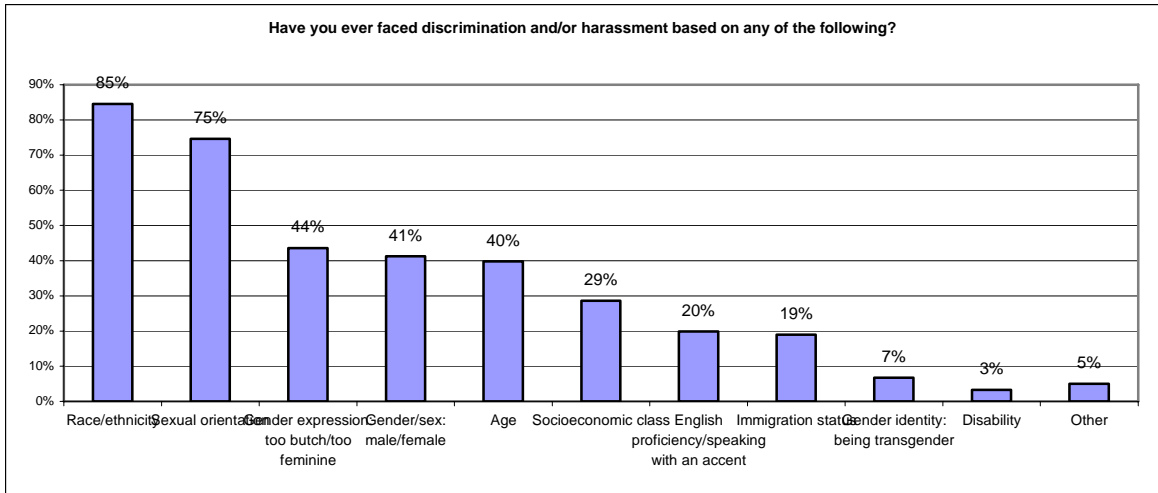
교제 상태 RELATIONSHIP STATUS

응답자중 삼분의 일이 약속된 사람이 있다고 답했으며 10%가 함께 살고있는 파트너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

차별 DISCRIMINATION

거의 모든 응답자 (98%)가 살면서 최소 한 번의 차별 그리고/또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 85%의 응답자가 자신의 인종 또는 민족 때문에 차별 그리고/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성적 성향때문에 차별 그리고/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트랜스젠더 열 명중 일곱에 가까운 응답자(69%)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거의 모두에 가까운 응답자(89%)가 전체 API 커뮤니티내에서 동성애 혐오 또는 트랜스젠더 혐오의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다.

응답자의 75%가 API LGBT 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LGBT 커뮤니티내에서 인종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 VERBAL AND PHYSICAL HARA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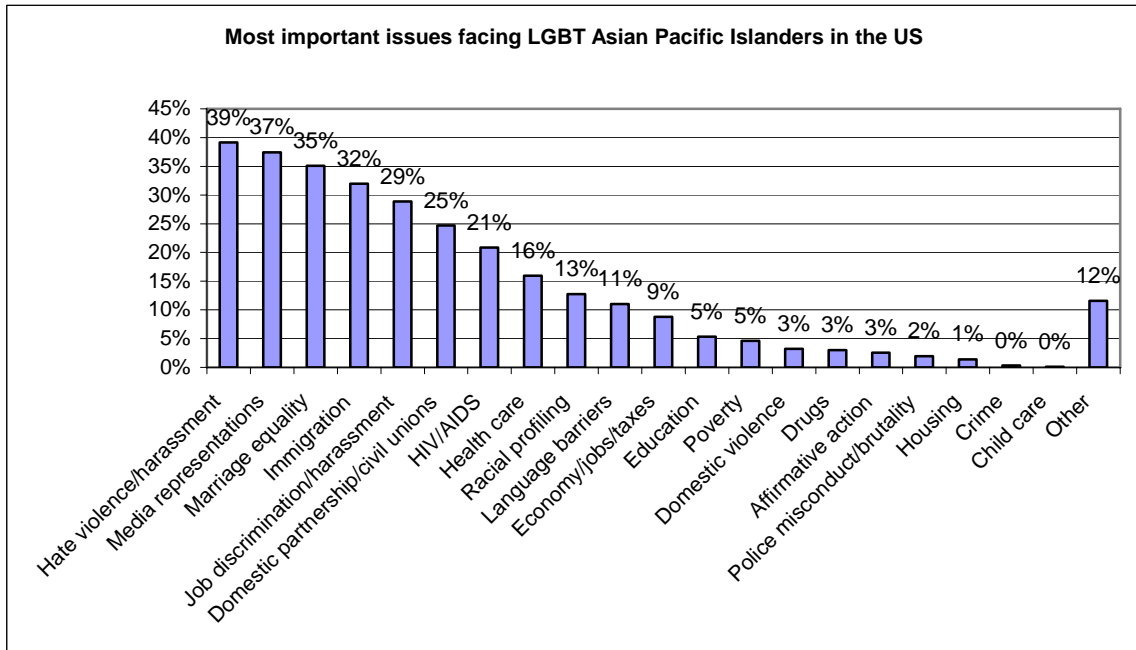
압도적이 숫자의 대다수 응답자가 살면서 아시아 태평양계라는 이유(77%)로 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74%)로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응답자 다섯 중 한명에 가까운 숫자(19%)가 아시아 태평양계라는 이유로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6%의 응답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책적 우선순위 POLICY PRIORITIES

응답자들은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 1) 이민 (57%), 2) 대중 매체의 표현 (38%), 그리고 3) 언어 장벽 (38%)을 꼽았다.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API LGBT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1) 증오 폭력/괴롭힘 (39%), 2) 대중 매체의 표현 (37%), 3) 평등한 결혼 생활 (35%) 그리고 4) 이민 (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 POLITICAL BEHAVIOR

설문에 참여한 API LGBT 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7%의 응답자가 2006년 중간 선거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중 약 20%는 투표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투표 자격이 있는 응답자중 다수 (67%)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20%는 소속된 정당이 없다고 했다. 2%만이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탄원서 서명(81%), 행진 또는 시위 참여(65%), 및 선출된 공무원과 접촉(55%)등 기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론 CONCLUSION

지금까지 활동가들은 API LGBT 들이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일화적인 증거를 자주 인용해왔다. 전국에서 모아진 이 설문조사의 자료들은 인종, 민족, 성적 성향, 성 정체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근거한 차별과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켰으며 이는 전체 아시아 태평양계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이 설문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설문 조사 응답자들이 이민, 증오 폭력 및 괴롭힘과의 싸움, 대중 매체의 표현, 건강관 관련된 문제들 (특히 HIV/AIDS 관련 문제들),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언어 장벽에 관련된 중요 정책상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활동가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조사 자료를 각 지역, 주, 그리고 전국 수준의 정책 변화를 위한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설문 조사는 API LGBT 들의 살아가면서 경험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 인종차별, 동성애혐오/성전환혐오, 성차별과 계급적 편견의 교차점을 이해하고 이 것들이 어떻게 API LGBT 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들 통해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기회들을 . 이 연구 보고서에 제기된 백인 LGBT 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소수 인종 또는 소수 민족으로 겪은 경험에 따른 문제들이 LGBT 이성애자 API 들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겪은 경험만큼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응답자들이 정의한 정책적 문제들은 응답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율과 연결시켜 볼 때 LGBT 커뮤니티내에서의 인종적 문제와 API 커뮤니티내에서의 성적 성향 문제를 진지한 담론으로 전환할 의미 있는 기회를 찾으려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커뮤니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